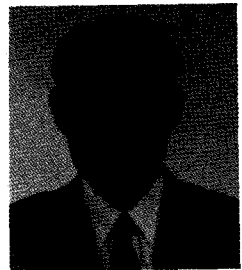


유통구조개선에 큰 기대를 걸어보며



최문환 목사
선린마을 개척자

우 선 필자는 독자 여러분앞에 심심한 양해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팔순이 훨씬 지난 늙은이가 이제 글을 쓰다니 어찌면 노망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면 노파심의 발로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다다른 오늘 우리 농촌의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소위 성직자로서 오십평생을 목회생활을 하면서도 날로 황폐해가는 이 나라 농촌에 대한 걱정이랄까 또는 희망과 기대를 필자 나름대로는 잠시도 잊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팔십평생을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40년전 우리 농촌

을 풍미하는 구슬픈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농촌은 버림받은 고장이오 이 나라 농민은 저주받은 백성이다”라고, 40년전이나 지금이나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어느 시골국민학교에는 전교학생이 4명뿐 이라는 거짓말 같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농고(農高)에는 학생이 정원미달로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 계획대로는 앞으로 '95년도까지 농어촌국민학교 369곳을 연차적으로 폐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촌에는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가장이 6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다음해부터는 쌀자급량이 태반 부족될 정황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농촌에는 비어있는 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3년전 일입니다

만 충북 괴산군 어느 시골마을에 사는 50대 가난한 농부가 이른 봄부터 피땀을 흘리면서 가꾼 고추농사가 생산비마저도 거둘 수 없게되자 농부는 고민하다 못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그 보도를 보고 그 농부가 살고 있는 고장으로 찾아 갔습니다. 마당에는 고추푸대가 하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세팔을 옆에 얹어놓고 목을 놓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농촌총각은 장가들때가 지났는데도 농촌에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친구의 소개로 도시의 처녀를 세번 만나보았지만 농촌에는 시집을 갈 수 없다며 절망적인 반응을 보였을때 이 총각은 고민고민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떠합니까. 중본도 못미치는 소본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제1차 산업이었던 농업이 3차산업에도 못미치는 오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 이 나라 농촌은 버림받은 곳이요. 이 나라농민은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같이 가슴위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필자는 또 다시 40년 전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쌀생산도 커다란 문제이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축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농가에서 몇 마리씩 키워오던 양계업을 지양하고 기업적인 양계업을 장려해야 하겠다는 각오와 결심끝에 필자 자신이

우선 양계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농촌을 살살히 돌면서 기업적인 양계업과 또는 간단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양계업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극한 상황에 다다른 우리 농촌을 살려는 길은 축산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오늘 이 지면을 통해서 간절히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만 유통구조개선이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계란한알에 생산자는 50원인데 그 한알이 소비자에게는 100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곱절이나되는 이윤은 중간상인의 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과감하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키는 문제가 절실합니다. 필자는 40년전 그 옛날부터도 이 억울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했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만 저만 한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킬 수 있다면 50원 생산자와 100원 소비자가 반반의 이윤을 나눌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누구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과감한 실현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실을 진정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이상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양계업**